

# 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1. 제 인생 '가장 훌륭한 세 가지 선택'

저는 미술학원이 없는 하동에서 미술교육과를 진학하고 임용 1기로 미술교사가 된 후 일반 중고등학교, 공립대안학교, 교육전문직등 32년간 몸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 인생 최고의 세가지 훌륭한 선택은

- 대학 재학 때 한뜻야학교를 만들어 2년 여간 야학교사로 헌신한 것
- 태봉고등학교 창립 교사로부터 7년간 근무하며 새로운 교직과 삶을 살게된 것
- 경남교육청에서 나라사랑교육 담당장학사를 자처하여 독립운동사 선양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중 태봉고등학교는 나의 진정한 대학이었으며 인생을 통째로 바꾼 커다란 물줄기였습니다. 태봉고의 7년을 통해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잘 못 살고 있었는지' 를 깨닫게 되었으며 저의 삶은 태봉고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 2. 저는 열정 넘치는 만능 엔터테이너 '경남교육청의 탁현민' 이었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을 수료하며 개인전을 5회, 경남도전 특선, 형상미술대전 특선, 화랑미술제 초대전, 대구 아트 엑스포 초대전과 단체전 100회가 넘는 미술작가입니다. 2001년~2004년 진주 MBC TV '우리 것을 찾아서' '문화공감' '에나세상' 진주 MBC 라디오 화성남자 금성여자 등 공중과 방송 경험이 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 3단독 민사조정위원으로 3년간 활동했습니다.

경남 최초로 태봉고에서 '희망공작소' 를 최초로 만들었고 부족하지만 웬만한 인테리어와 가구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을 건축, 목공 분야에 진로·진학 시킨 것은 큰 성과입니다. 경남미술교육연구회 기획, 홍보이사를 역임하면서 미술과 연수, 수업개선, 미술교육 자료개발, 미술대회 개선, 미술과 임용고사 심사위원 등 미술교육에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 수필을 적는 등 글쓰기를 좋아했으며 태봉고에서 시작한 '적는 습관' 을 바탕으로 곧 <함부로 학교>라는 교육 에세이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행사, 이벤트, 레크리에이션을 기획하고 진행한 경력이 30년이 넘고 교회 성가대, 통영 벽수골 연극단 활동도 했습니다.

진주시 전 교회가 참여하는 부활절행사 'Be the White!' (2006년), 진주대첩제 총괄 기획(국무총리, 박효0, 이준0 등 출연 2011년)등의 민간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3.15 뮤지컬 '화요일' (2020), 석정 윤세주 순국 80주년 기념 뮤지컬 '광야' (2022)등 창작뮤지컬 2편과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뮤지컬 '있다', 광복 74주년 기념 뮤지컬 '무궁' 등 총 4편의 뮤지컬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밀양 교육 컨퍼런스-MeduCon등의 다양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경남교육청의 탁현민' 이라는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 3. 저는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의 창립 멤버이며 ‘대안사람’ 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11월, 태봉고의 설립준비위원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말 태봉고를 떠날 때까지 대안교육의 중심에서 활동한 공립대안교육의 1세대입니다.

7년 여간 인성부장, 3학년 부장, 학년 부장, 평생교육부장, 연구 부장등을 통해 대안 교육과정 수립, 대안교육 직무연수, 학부모 대안교육 연수, 학부모 평생교육반, 태봉 큰잔치, 공동체의 날, 제주도 도보 학습, 지리산 종주, 3학년 통합 기행, LTI 운영 및 발표회, 시문화 잔치 등 다양한 대안교육 공동체 교육의 큰 축을 감당했습니다.

경남 최초로 희망공작소라는 목공소와 작업장, 카페를 교내에 만들었고 학교행사의 플래카드, 게시물, 기념품, 홍보물 등 태봉고의 모든 조형물을 학교 철학을 담아 디자인했습니다. 저는 교육공동체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마을벽화 그리기, 장승세우기, 공동체의 날, 홈커밍 데이, 러브하우스 프로젝트 등 교육 3주체가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개교식 직후 과로로 쓰러져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스트레스와 과로로 3번 입원하였고 큰 행사 때마다 아파서 누울 만큼 헌신하여 ‘태봉악골’ 이라는 훈장을 얻을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경남교육청, 한빛고, 강원교육청, 전남교육청, 대안교육직무연수, 경남 미술교사 연수, 미술과 1급 정교사 연수 등에서 대안교육 강의를 하였으며 영광성지 고등학교, 한빛고, 우다다학교, 동화중학교, 산청간디고, 금산간디고, 늦봄 문익환학교, 한울고, 화랑고, 광주돈보스코 학교, 꿈키움학교, 성미산학교, 서울하자센터, 희망제작소 등 전국 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 현장을 방문하며 대안교육을 위한 배우는 전문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대안교육연수(3회), 전국 배움의 공동체 연수(3회), 교내 배움의 공동체 수업사례연구(7년), 전국의 대안학교 설립 컨설팅은 오늘 금곡고 공모 교장으로 지원하는데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EBS ‘학교의 고백’, 헬로 TV 2회, KNN, SBS, MBC 등 대안교육관련 프로그램에서 중요 비중으로 출연하였습니다.

### 4. 저는 교육전문직 ‘장학사’ 출신으로 행정능력과 다양한 역량을 갖춘 경영인입니다.

저는 현재 2018년~2019년 경남도교육청(중등교육과) 장학사를 시작으로 2020~2023년 밀양교육지원청의 장학사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나라사랑교육, 자율학교, 온라인교육과정, 연구학교, 교육실습생 업무, 밀양교육청에서는 중등팀장으로서 인사, 수능, 중등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학교폭력, 민주시민교육, 안전교육, 진로, 전학, 밀양 열 교육 등 교육행정의 전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특히 6년간 했던 나라사랑교육-평화·통일교육, 밀양독립운동사 선양교육사업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국내외 사적지 탐방, 현장지원단 운영, 경남학생독립운동사, 칼과방울을 찬 선비, 일제잔재청산 용어 사전, ‘밀양 열’ 길 개발, 전국 독립운동사 연수, ‘밀양아리랑과 독립군가’ 로 학교중소리 바꾸기 ‘밀양을 울리다’, 밀양교육 메타버스(Metavers) 개발 등은 밀양교육에 큰 교육자산이 되었습니다. 전문직을 통해 얻은 행정력과 경험,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는 고스란히 금곡고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5. 저는 교육자료개발, 강의, 수상 등 다방면에 경험이 많은 경영인입니다.**

2005년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 문화컨텐츠 개발 “함양의 누정문화”, “창녕의 석물문화” (경남교육연구정보원), 2014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교과 창의·인성 자료집 “미술작품을 통하여 본 인문여행” (경남교육연구정보원), 2009년 미술과 임용고사 실기고사 출제위원, 미술창작, 미술문화 인정교과서 검토 위원, 2013년 경남 금연흡연예방 자료개발 ‘콜롬부스의 고백’ 제작 팀장, 2016년 심화형 대안학교 설립추진 TF팀 팀장, 2017년 예술체험교육기관 해봄설립 TF, 현 2023년 000 예술교육설립 TF위원 등 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2007년 경상대학교 미술교육과 4학년 미술 교과교육론,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TESOL과정 학생들에게 한국화(영어 강의) 지도, 전국 대안교육 컨퍼런스 강의(전남 여수), 미술과 직무연수, 대안교육 직무연수, 전남교육청, 강원교육청, 일반학교 교사, 교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관련 강의를 했으며 2021년 부터는 한국독립운동사, 재주 4,3 강의등 역사 관련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장관표창 4회(행자부장관 1회, 교육부장관 2회, 통일부장관 1회), 교육감 표창 6회, 미술 교과경진대회 1등급, 교원예능경진대회(2회) 등 4회 수상하는 등 학교 생활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6. 저는 ‘아이들을 사랑한 선생님’ 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명석중, 산청중, 산청고 미술실을 새로 만들었고, 미술학원이 없었던 산청군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미술 캠프도 열었으며 해마다 20명이 넘는 미술부원을 양성해서 미술교사, 학원강사, 디자이너, 건축사, 만화가, 목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술교육의 불모지 산청에서 발굴, 지도했던 학생이 E대 서양화과에 2명을 입학시켰던 일을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2002년 진주중학교에서 흡연, 문제행동 학생 모임 ‘좋은 친구들’ 동아리를 만들어 금연교육과 함께 상담, 진로코칭을 하였고 학교 축제에 그들만의 특별무대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공연 후 그들의 활동에 감동한 학부모의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교복, 체육복을 사주었습니다. 당시 진주중 선도부장이었던 김기0 학생은 그 인연으로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등 앓기도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 진주MBC “퀴즈 풀고 세계 여행” 프로그램에 명석중학교 3학년 전체를 출연시켜 박효0 학생이 2위를 차지하며 세계여행을 다녀오도록 했고 2009년 산청중고등학교 통합 학예발표회 기획하여 당시 산청읍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고, 1박 2일 금연캠프를 만들어 학교내 담배꽂초 ‘0’ 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야학을 시작으로 일반학교에서 12년, 태봉고에서 인성부장 1년, 전문직 학폭담당 1년 등 교직의 절반을 학생 생활교육 업무를 하면서 영안실, 교도소, 경찰서, 법원. 방송국 등을 다니며 수 많은 학생 생활관련 사안들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태봉고에서 동물치유를 위해 토끼장을 짓고 방학때도 출근하여 풀을 뜯어 먹이며 힘든 아이들의 친구로 삼게 하였고, 1:1 멘토링-Change 프로젝트를 통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며 행복했습니다. 태봉고에서 낳은 막내의 돌잔치 대신 같은 나이의 아이 (콩고 생. 줄리, 여, 2010년생)를 지금까지 후원 중입니다.